

‘광복 60주년 기념 열린 미술관 : 산책, 건축과 미술’展



공간을 이용한 이동석씨의 꽃 설치작품



숨을 이용한 권중환씨의 자전거·책상 설치 작품



건축물과 일제 피해자를 담은 전재홍씨의 사진

문화의 눈으로 原도심을 본다

빛 바랜 흑백사진같던 대전 원(原)도심의 문화재 건축물이 열린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립미술관과 ATA(아시아건축연구소)가 함께 여는 ‘광복 60주년 기념 열린 미술관 : 산책, 건축과 미술’전. 딱딱한 전시실의 인공 조명 아래서 빠져나온 다양한 작품들이 1950년대 건립된 중구 은행동의 대전지방보훈청 별관(등록문화재 제100호)에 자리잡고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민들과 만난다. 도심 공공 건물 전체를 빌려, 근대 건축물의 독특한 공간미와 어우러지도록 내·외부에 전시를 구성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이다.

◆관화·조각·설치·사진·영상…

대전 지역 중견작가 7인이 저마다 개성 가득한 작품을 내놨다. 정장직 우송대 교수는 도시형 인간의 얼굴을 관화로 표현했다. 조각가 이상봉씨는 근대 이후 대전 발전의 현장이었던 충남도청과 대전역 사이 도시 풍경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냈다.

작가 7인 설치·사진·영상 다양한 시도
은행동 대전보훈청 별관서 23일부터

전시 열리는 대전 중구 은행동의 대전지방보훈청 별관 건물. 대전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이다.

건물 천정 등은 숨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결상 등 권중환씨의 설치 작품이 장식할 예정. 공간을 이용한 꽃 설치 작품(이동석), 철로 만들어 창·문을 장식하는 공예 작품(유재중)도 선보인다.

사진작가 전재홍씨는 일제 때 한센병에 걸려 소록도로 보내진

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문과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노인의 모습을 가로 2.5m 세로 2m가 넘는 대형 사진에 담았다. 유동조씨는 건물 외벽에 물과 불을 테마로 도시 건축물의 현재와 미래를 암시하는 영상 레이저쇼 ‘사이(Between)’를 준비했다.

◆“원도심에 문화적 활기를”

풍족한 밥상과 잘 구획된 도시 환경을 마련해 준 산업화와 개발 붐. 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 북새통 속에 잊혀지거나 뒤로 밀려났다. 이번 전시는 시청·법원 등이 둔산으로 옮겨 가면서 급속히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전 원도심 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문화의 시각에서 접근한 의미있는 시도. 여기에 개인작가, 국가기관(보훈청), 시립미술관에 대한 연구실과 기업이 협력하고, 3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맡는 등 새로운 ‘전시 실험’을 위해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았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필원(한남대 교수) ATA 대표는 “공연·전시가 신시가지의 대형 시설에 집중되면서 원도심의 주민들도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시민들의 일상이 새겨져 추억이 된 장소를 문화적 활력의 원천으로 바꿔내는 실험”이라고 말했다.